

# 해양 치유 활성화로 新해양 관광시대 연다

### 완도군, 빅데이터 기반 해양치유 데이터플랫폼 구축 웰니스 산업 특화도시 지정·스포츠 재활센터도 건립

완도군이 '신 해양 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민선 8기 공약 중 해양 치유 관련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양 치유 분야 공약 사항은 ▲빅데이터 기반 해양 치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웰니스 산업 특화 도시 지정 ▲해양 치유 스포츠 재활 센터 건립 등이다.

'빅데이터 기반 해양 치유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2023년 5월 시범 운영 예정인 완도해양치유센터(조감도)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기술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시범 운영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하나로 모으고 정리하는 1단계, 빅데이터로서 가치를 지니는 데이터들을 추출·가공해 제공하는 2단계, 인공지능 분석 기능이 접목된 3단계 과정을 거쳐게 된다.

'웰니스산업 특화도시 지정'은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웰니스 관광지로서의 완도군의 위상을 강화하고 해양 치유 특화 웰니스 특화도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완도군은 지난 7월 K-웰니스 브랜드 대상(해양치유 분야)을 수상한 바 있



며, 내년에는 해양 치유에 특화된 도시로서 다양한 상품 개발과 함께 기반 시설을 확충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해양문화치유센터, 청산 해양치유공원과 함께 2023년 상반기에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운영되면 웰니스산업 특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치유 스포츠 재활센터'는 전지훈련으로 완도를 방문하는 초·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대학·실업팀 선수들이 겪는 부상을 해양자원을 활용해 치유

하고 재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재활센터 건립은 현재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에 있으며, 해양치유센터 내부에 소규모 재활 시설을 도입해 효과와 효율을 검증한 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완도군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은 4차 산업이 연계된 신성장동력 산업이자,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이끄는 웰니스 산업, 스포츠 재활과 어우러진 스포츠산업의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우철 군수는 "현재 해양치유센터와 연계된 관광 상품·체험 프로그램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해양치유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해양치유가 더욱 활성화되고 다양한 산업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윤보현기자

### 무안군, 갯벌 수산자원 회복 추진 어미 낙지 1만1천500마리 방류

무안군은 12일 "대표 수산물인 갯벌 낙지 자원 조성을 위해 최근 약 1만1천500마리의 어미 낙지를 탄도만 일원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방류된 낙지는 내년 봄 산란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2020년 낙지 산란·서식장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낙지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어미 낙지를 방류하는 등 낙지자원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 탄도만 일원에 낙지가 산란할 수 있는 서식장 4개소를 조성하고, 올해에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금어기간 동안 어미낙지 3만1천마리와 먹이생물인 철개 800kg를 방류해 자연산란을 통한 개체수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올해 낙지 조업량은 11월까지 목표수협의 위관된 낙지 기준으로 1천660천마리(8만3천점)가 위관됐으며, 이는 목표수협위관장 관할(무안·목포·해남·진도·신안)에서 위관된 전체 낙지(4천150천마리)의 40%의 어획량을 차지하는 양으로 지속적으로 자원 조성한 결과로 풀이된다. /무안=김상호기자



강진원 강진군수, 스마트팜 혁신밸리 방문 강진원 강진군수가 최근 강진 농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관내 원예농가 20여명과 함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다. 강진군은 200억원 규모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준비하고 있다. <강진군제공>

## “신안 섬 겨울꽃 축제로 오세요”

### 압해읍 1004섬 분재정원 애기동백꽃 활짝

신안군은 12일 “섬 겨울꽃 축제가 내년 1월31일까지 압해읍에 소재한 1004섬 분재정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분재정원 내 3km에 이르는 애기동백 숲길에 식재된 애기동백나무 2만그루가 벌써 개화해 분재 정원을 붉게 물들이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4천만송이의 애기동백꽃이 관람객에게 황홀한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이번 축제에는 애기동백꽃을 주제로 만든 플라워 월(Flower-Wall)과 플라워 아치(Flower-Arch) 등 포토존이 운영되고, 인공지능기로 만든 ‘눈 내린 동백 꽃길 걷기’, 새해 이루고 싶은 소망을



적어 나무에 묶는 ‘소원지 쓰기’, 축제 기간 작성한 엽서를 보관했다가 내년 여름에 배달하는 ‘나에게 보내는 엽서 쓰기’ 등 체험 행사도 진행된다. /신안=양홍기자

### ‘백련재 문학의 집’ 입주작가 모집 해남군, 최대 5개월 집필 공간 제공

해남군은 12일 “‘백련재 문학의 집’ 문학 창작공간에 입주할 제7기 입주작가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백련재 문학의 집은 문학인이 머물며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학 창작공간으로 해남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산 윤선도 유적지내 위치한 고즈넉한 한옥형 건물로 총 8실(다용도실 포함), 개별 약 19.44㎡의 규모로 작가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이 조성돼 있다.

모집 분야는 시(시조), 소설, 수필, 평론, 번역, 희곡, 아동, 청소년 등이며 모집 인원은 총 3명이다.

신춘문예나 문학전문지 등을 통해 등단한 지 3년 이상 된 작가이면서 10년 이내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는 기성 작가나, 아직 등단하지 못했으나 훌륭한 작가가 될 가능성을 인정받아 등단 작가 혹은 지도교수의 추천서 제출이 가능한 예비 작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입주작가는 일체의 시설 비용을 면제받는 대신 월 15일 이상 머물며 집필(필수), 소식지 발간시 원고 제출(필수), 입주작가 소개 영상 제작(선택) 등의 입주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2023년 1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접수 받으며 입주 기간은 3월 7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해남=박필용기자

## 나주시, 道 평생교육 평가 2년 연속 우수상

### 시민 수요 반영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 호평

나주시가 ‘2022년 전남도 평생교육 활성화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우수상과 시상금 800만원을 수상했다.

지난해 도입된 평생교육 활성화 평가는 도내 평생교육 활성화 분위기 확산과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남도에서 주관한다.

각 시·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아리 경진대회 참여, 우수 사례 등 한 해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해 우수 시·군을 선정, 인센티브 사업비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정리수납 전문가 2급 등 45개 평생학습관 정규강좌, 흥림마을 소곤소곤 바느질 이야기 등 행복학습센터 8곳, 나주배로 파티세로 스쿨 등 지역 대

학·관계 기관 자원을 연계한 5개 학습, 국·도비 공모사업(6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8개) 등 각계각층 시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평생학습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신규 사업인 ‘집콕 라이브, 슬기로운 Farm의 재발견’은 도시와 농촌을 잇는 비대면 농산물 요리 체험을 제공하며 우수 사례로 인정받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농촌 마을은 대표 농산물을 각 가정에 전달하고 교육생들은 온라인 화상 플랫폼에서 요리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새로운 요리 레시피를 개발·체험하는 방식의 평생학습이다.

교육생들은 마을 특산물, 자랑거리, 주민들을 소개하는 홍보 영상을 실습 전

시청하고 농촌마을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발된 레시피와 마을별 홍보 영상은 시청 유튜브 채널에 게시돼 지역민과 학생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10월 개최된 교육부 주관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올해의 평생학습부문’에서 우수상을 차지하며 2021년 특별상에 이은 전국 지자체 유일의 2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누리 바 있다. 여기에 전남도 평생교육 활성화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의 품격을 높였다.

윤병태 시장은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과 학습자 수요를 반영한 신규 학습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정종환기자

### 목포 문태고, 통일공감콘서트 ‘톡투유’ 호응

문태고등학교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가 통일 교육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문태고등학교는 12일 “최근 우정학사 4층에서 수능 이후 3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목포시협의회와 연계한 ‘통일공감 토크콘서트-톡투유(Talk to you)’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통일 미래 세대인 고등학생들에게 평화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급변하는 통일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한반도 통일의 비전을 공유를 위해 진행됐다. 이성주 경기평화교육센터 교육국장, 김세진 삼일교육위원의 진행으로 아이스브레이킹과 마음 열기 질문을 통



해 공감하고 공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 학생들은 진지한 태도로 소통과 공감에 나섰으며 콘서트의 하이라이트인 ‘전투와 다육식재 퍼포먼스’도 이어졌다.

이명주 문태고 교사는 “통일교육이 모든 단위학교에서 정상화돼 한민족 소원인 ‘통일’을 위한 퍼포먼스와 배움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정혜선기자

##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 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기사모집

# 카메라

## 전문 수리 기술자 모심

마스타 레벨 이상 자격을 갖추신 분 **특별우대**

정규직 급여 상담 후 결정

**문의전화**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